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오 종 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15세기 朝鮮人의 天下觀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김 율 희

15세기 朝鮮人의 天下觀

오 종 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김 율 희

인 준 서

김윤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15세기의 조선은 고려로부터 이어져온 다양한 문화적 토양에서 개국하였다. 그러나 주자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은 세대가 이어져감에 따라 점차 이러한 다양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유교를 중심으로 한 왕조체제 형성에 힘쓰기 시작했다. 이는 주자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안착하게 되는 16세기부터 성리학적 사상체계에 기반 한 세계인식과 세계관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과거 15세기 조선은 고려로부터 주자학적 조선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설정, 연구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조선이 명에 대해 사대외교를 펼쳤다는 이유로 조선의 지배층이 모두 中華主義的 世界觀에 입각하여 天下를 인식하였다고 보아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해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였다. 15세기 조선인의 천하관이 고려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문화적 토양아래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전제하고, 그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살필 대상은 조선 건국 초기에 국가사업으로 제작한 天文圖와 世界地圖인 『天象列次分野之圖』와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으로 정하였다.

태조 4년에 완성된 『천상열차분야지도』는 天命을 통해 태조 이성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천문도의 제작을 통해 태조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은 조선인의 독자적인 天觀과 천명인식에 따른 행위였다. 그리고 태종 2년에 완성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기존의 화이관적 세계지도에 문제점을 느낀 조선의 지배층이 조선과 요동 및 일본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세계지도였다. 이러한 세계지도 제작에는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5세기 조선인 가운데에는 조선의 독자적 천관과 천명의식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의 관념은 기존의 다원적 천하관에서 발전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나타나는 세계인
식은 세종과 양성지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天象列次分野之圖』로 본 天觀	6
1. 太祖 石刻本의 구성과 내용	6
2. 제작 목적과 과정	9
3. 天觀과 天命認識	15
III.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세계인식	21
1. 龍谷大本의 구성과 내용	21
2. 제작 목적과 과정	24
3. 세계인식의 내용	29
IV. 天觀과 세계인식을 결합한 天下觀	37
V. 결론	42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I. 서론

조선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려 했던 국가였다. 따라서 종래의 역사학계에서는 15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조선사회를 성리학의 발달 과정 및 정착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였고, 이에 따라 15세기는 16세기의 과도기적 시기로 이해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15세기의 조선을 이해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성리학적 가치관 외에 고려의 문화적 풍토로부터 緣由하는 문화현상 또는 사상적 측면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이 명에 대해 사대외교를 펼쳤다는 이유로 조선의 지배층들이 모두 中華主義的 世界觀에 입각하여 天下를 인식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선의 前王朝였던 高麗는 처음부터 황제국 체제를 갖추고 개창한 왕조였으며, 麗末의 恭愍王 在位期에 이르러서는 元에 대항하여 다시금 황제국 체제로 회귀하고자 노력하였다. 게다가 조선 왕조에 참여한 대다수의 지배층들은 한때 고려의 신하로서 자주국 고려를 되찾으려는 시대적 상황을 겪어 온 인물들이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고려인으로서 살았던 조선의 지배층들이 개국과 동시에 고려인으로서의 자존의식을 버리고 명을 중심으로 천하를 인식하려 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15세기 조선의 지배층이 가지고 있던 독자적 天下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 조선 개국 초기에 국가사업으로 제작하였던 天文圖와 世界地圖인 『天象列次分野之圖』와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자료를 중심 자료로 선정한 것은 조선의 지배층들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조선의 지배층이 사유한 천하관이 이 자료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태조 4년에 제작된 全天天文圖로서 국내에 原本인 태조 석각본이 現存하며 그 외에도 宣祖 木版本, 肅宗 復刻本과 여러 筆寫本들이 전해지고 있다.¹⁾ 다만 태조 석각본의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원본과의 비교했을 때 내용상의 큰 차이가 없는 선조 목판본과 숙종 복각본 및 필사본들과의 대조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였다.

한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원본이 현존하지 않지만 일본에 4개의 寫本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이 사본들 중에 제작연대가 15세기까지 올라오는 사본은 龍谷大學校 사본(1470년대 제작 추정)이 유일하다.²⁾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곡대학교 사본을 바탕으로 연구하되, 현재 용곡대학교 사본 또한 손상도가 심하기 때문에 지명을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있는 이찬의 모사본과 대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天象列次分野之圖』에 관한 기존 연구는 천문학과 역사학의 분야에서 주로 다루졌다. 이에 따라 연구의 중심 내용이 천문도의 내용을 천문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모본의 제작시기와 세종 때의 개정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는 한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 목적과 그 과학사적 의의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³⁾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새 왕조의 권

1) 태조 때 만든 석각본은 烏石에 새긴 석각천문도였는데, 숙종 13년(1687)에 태조 때의 석각 천문도의 마모가 심해 더 이상 알아 볼 수 없자, 태조 때의 것을 대리석에 復刻한 것이 숙종 복각본이다. 선조 목판본의 경우 최근에 공개되었는데, 태조석각의 마모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을 선조 목판본을 통해 숙종본과의 비교 및 대조가 가능해졌다. 대체로 태조석각과 선조본을 거의 동일한 판본으로 보고 숙종 복각본은 당대에 이르러 약간의 수정을 거쳤다고 판단한다. (안상현, 2013, 「신구법천문도 병풍의 제작 시기」, 『고궁문화』 6호, 10쪽.)

2) 대체로 용곡대학교 사본의 제작시기는 1470년대로 보고 있는데, 1455년 폐지된 압록강 국경 지역의 세 고을인 여연(閔延), 무창(茂昌), 우예(虞芮)의 이름 앞에 ‘古’자를 붙여 두었다는 점과 1459년과 1466년에 폐지된 예원(豫原)과 수천(隨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青山定雄, 「元代の地圖について」, 『東方學報』 8冊, 1938.)

3)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W. C. Rufus, 1913, “The Celestial Planisphere of King Yi Tai-jo”,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4.3.,

나일성, 1984, 「조선시대의 天文儀器 연구」, 『동방학지』 42.

_____, 1996,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각석 600주년 기념 복원」, 『동방학지』 93.

위의 표상이자 고려에서 전래한 고구려 천문도의 특징이 담긴 조선의 독특한 천문도라는 견해가 일반적인 관점으로 굳어졌다. 또한 최근에는 안상현의 연구를 통해 『海東雜錄』의 기록을 잘못 해석한 Rufus의 논문이 국내에서 무비판적으로 이해되었음을 비판하고 『천상열차분야지도』의 母本이 고려의 천문도일 가능성을 제기되었고⁴⁾, 후속 연구들을 발표하면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 경향에서는 천문도 자체에 대한 사상적 접근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보인다. 다만 최근 남궁승원의 논문에서는 천문도의 모본이 ‘平壤城’에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麗末鮮初 지식인들의 단군·기자 계승의식을 조명함으로써 천문도를 통해 조선인의 사상적 측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편,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대한 기존 연구의 쟁점은 주로 이제까지 발견되었던 중세의 세계지도 중에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의 지리정보를 담고 있는 세계지도가 어떻게 동양에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문제였다.⁵⁾ 『

이은성, 1986,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분석」, 『세종학연구』 1.
 전상운, 1992, 「조선전기의 과학과 기술 - 15세기 과학기술사 연구 재론-」,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4권 2호.
 박명순, 1995, 「天象列次分野之圖에 대한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 17권 1호..
 박창범, 1998, 「天象列次分野之圖의 별그림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20권 2호.
 구만옥, 2007, 「“天象列次分野之圖” 연구의 쟁점에 대한 檢討와 提言」, 『동방학지』 140.
 한영호, 2007, 「天象列次分野之圖의 실체 재조명」, 『古宮文化』 1.
 안상현, 2011,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오는 고려시대 피휘와 천문도의 기원」, 『古宮文化』 4.
 _____, 2013a, 「『天象列次分野之圖』 圖說의 문헌학적 연구」, 『民族文化』 42.
 _____, 2013b, 「신구법천문도 병풍의 제작 시기」, 『고궁문화』 6호, 10쪽.
 4) Rufus는 천문도의 모본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麗季’의 해석을 ‘고구려 말기’라고 이해하였고 이를 국내에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이때까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고구려 천문도임을 주장하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 문제에서 고구려 모본설을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고려시대의 모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역사학적으로도 합리적이며, 천문학적 연구의 결과와도 부합된다고 주장하였다. (안상현, 2011,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오는 고려시대 피휘와 천문도의 기원」, 『古宮文化』 4호) 남궁승원, 2016, 『〈天象列次分野之圖〉에 나타난 역사계승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J. ニーダム, 1976, 『中國の科學と文明』 제6권, 思索社.
 이찬, 1976, 「韓國의 古世界地圖 : 天下圖와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대하여」, 『韓國學報』 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국제사회에서 각광받기 이전에는⁶⁾ 사본이 모두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학계에서 먼저 이 지도를 연구해왔으며,⁷⁾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元의 지도로서 살펴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최근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저본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던 宮己子の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관점이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찬의 연구를 통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조선 시대에 제작된 세계지도로서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주목하였으나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세계인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특히 오상학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조선 전기의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려진 세계지도이지만, 아프리카 및 유럽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인의 개방적인 세계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나,⁹⁾ 최창모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아프리카와 유럽 부분이 세계지도에 표현된 것은 중국의 천하를 더 넓게 묘사하기 위해 외연을 넓힌 것으로 이 지도가 중화주의적 세계관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음을 강조하였다.¹⁰⁾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나타나는 세계 인식이

한영우 외, 1999,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배우성, 1999, 『조선 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양보경, 2009, 「상징경관으로서의 고지도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1권 제1호.

오상학, 2011,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개리 레드야드, 장상훈 역, 2011, 『한국 고지도의 역사』, 소나무.

최창모, 2013,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1402년)의 제작 목적 및 정치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3-1집.

6) 이 지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92년에 미국에서 개최된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지도 전시회’에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출품되어 세계 지도학회로부터 큰 찬사를 받은 이후부터였다.(문중양, 2006, 『우리역사 과학기행』, 동아시아.)

7)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대한 일본학계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青山定雄, 1938, 「元代の地圖について」, 『東方學報』 8冊.

高橋正, 1963, 「東漸する中世イスラム世界図」, 『龍谷大學論集』 374.

船越昭生, 1982, 「中國傳統地圖にあらわれた東西の接觸」, 『地理の思想』, 地人書房.

宮紀子, 2007, 『モンゴル帝國が生んだ世界図：地図は語る』, 日本經濟新聞出版社.

8) 이찬, 1976, 「韓國의 古世界地圖：天下圖와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대하여」, 『韓國學報』 2.

9) 오상학, 2011,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10) 최창모, 2013,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1402년)의 제작 목적 및 정치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3-1집.

어떠하다는 결론만을 내놓았을 뿐, 조선에서 이러한 세계 인식을 할 수 있었던 정치적·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 전기에 대표적인 천문도와 세계지도로 꼽히는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조선 초기의 과학 수준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해되고 있지만, 해당 자료에 담겨있는 사상적 측면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다루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통해 15세기 조선인들이 이 천문도·세계지도를 만들면서 어떠한 생각을 담아 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15세기 조선인의 천하관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天象列次分野之圖』로 본 天觀

1. 太祖 石刻本의 구성과 내용

[도판1] 天象列次分野之圖 太祖 石刻本
拓本
(문화재청 제공 자료)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건국 직후인 태조 4년(1395)에 제작된 조선의 全天天文圖이다. 현재 발견된 동양의 全天天文圖 중 시기가 가장 앞서는 천문도는 1998년에 일본 아스카 유적에서 발견된 기토라 고분의 벽화 천문

도이며, 그 다음으로 1247년 제작된 중국의 순우천문도가 있다. 이에 따르면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세 번째로 오래된 전천 천문도인 것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크게 星圖와 圖說로 구성되어 있다. 성도는 큰 원형의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이 원형의 선 자체가 남방 한계이며, 그 안에 있는 별자리들은 한반도에서 관측할 수 있었던 모든 별과 별자리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성도의 정 가운데에는 北極五라고 표시된 五星北極이라는 별자리가 있고 그 중 오른쪽 끝에 있는 별인 天樞星이 당시의 北極으로, 이 별을 중심으로 별과 별자리들이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북극을 중심으로 바깥에 그려진 원이 周極圓으로, 1년 내내 항상 관측할 수 있는 별들의 한계선이다. 이 주극원과 同心圓으로 남북극의 中度인 赤道가 그려져 있고, 이 적도와 어긋나게 태양이 가는 길인 黃道가 그려져 있다.¹¹⁾ 주극원에서 뺀어 나온 28개의 선분들은 天象의 영역을 28수로 나누는 경계이다. 그리고 星圖의 바깥 테두리에는 전국시대 중국의 국가 이름을 따서 天象을 12개의 분야로 나누고 있다.

나머지 圖說은 크게 星圖를 설명하는 글과 개천설·혼천설 등을 설명한 論天, 그리고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 경위를 쓴 권근의 誌와 제작진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星圖의 부연설명문에 해당하는 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상단에 위치한 「十二國分野及星宿分度」와 「日宿」·「月宿」·24절기 昏曉中星表 그리고 하단에 있는 「二十八宿去極分度」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十二國分野及星宿分度」는 중국의 고대국가인 鄭·宋·燕·吳·齊·衛·魯·趙·晉·秦·周·楚의 분야와 이에 해당하는 州와 별자리를 설명한 글이다.¹²⁾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日宿」·「月宿」라는 글에서는 해와

11) 『天象列次分野之圖』, 「月宿」. “黃赤道 日之所由 謂之黃道 南北極之中度最均處 謂之赤道 黃道者 半在赤道外 半在赤道內 東交於角五小弱 西交於奎十四小強.”

12)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표현한 分野의 국가는 춘추시대의 12국인 반면, 여기에 대응하는 州의 지명은 춘추시대의 州가 아니라 전국시대의 州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分野說이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變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달과 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 천체들이 음양의 원리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며¹³⁾, 더불어 黃道와 赤道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¹⁴⁾ 상단 정중앙에 위치한 24절기 혼효중성표는 해가 뜰 때와 질 때 子午線을 지나는 별자리를 24절기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단 첫 번째 칸에 실린 「二十八宿去極分度」 또한 星圖의 설명문으로 북극을 중심에 두고 28수의 위치를 설명한 내용이다.

이러한 글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 天象의 영역과 천체들을 지상의 영역과 존재들에 대응시켜 보고자 하는 인식에서 생겨난 이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에 별과 별자리를 3원 28수로 나누어 인식하는 체계 자체가 천상의 영역이 지상의 영역과 대응된다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

13) [日宿.] 해는 太陽의 精髓이고, 모든 陽의 으뜸이다. 적도 안과 밖으로부터의 거리가 각각 24도로, 멀어지면 춥고 가까워지면 더우며 중간에 있으면 온화하다. 양의 기운이 세지면 태양은 북쪽으로 나아가서 낮이 길어지고 밤은 짧아지는데 양이 음을 이겼기 때문에 따뜻해지고 더워진다. 음의 기운이 세지면 태양은 남쪽으로 물러가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데 음이 양을 이겼기 때문에 선선하고 추워진다. 만약 태양이 남북에서 正道에 따라 운행되지 않으면, 태양이 북쪽으로 나아가서 낮이 길어져도 늘 추워질 것이며, 남쪽으로 물러가서 낮이 짧아져도 늘 따뜻해질 것이다. 恩德을 만들어서 만물을 기르는 것을 주관하는 것은 인군의 象이다. 그러므로 태양이 正道에 따라 운행되는 나라는 환히 빛나서, 人君은 길하고 昌盛하며 백성은 편안해진다. 별은 陽精의 꽃이다. 陽精은 해가 되고, 해가 나누어진 것이 별이 되기 때문에 그 글자가 日 밑에 生을 쓴 것이다. 後漢 史書 『釋名』에서 “星은 흩어진다는 뜻이니, 하늘에 퍼져 흩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月宿] 달은 太陰의 精髓이고 모든 음의 으뜸이다. 이것을 일지(日支 사주의 생일 천간)에 배합하면 여주(女主)의 형상이고, 이것을 덕(德)에 건주면 형벌(刑罰)의 뜻이며, 조정에서 펼치면 제후와 대신의 부류이다. 달이 황도의 동쪽으로 가는 것을 일러 靑道라고 하고, 황도의 남쪽으로 가는 것을 赤道라고 하고, 황도의 서쪽으로 가는 것을 白道라고 하고, 황도의 북쪽으로 가는 것을 黑道라고 하여 황도 안과 밖에 각각 네 개이니 皇道와 함께 九道라고 한다.(日宿.日爲太陽之精 衆陽之長 去赤道表裏各二十四度 遠寒近暑而中和 陽用事則進北 晝長夜短 陽勝故爲溫暑 陰用事則退南 晝短夜長 陰勝故爲涼寒 若日行南北失道則 進而長爲常寒 退而短爲常燠 主生養恩德 人君之象 故行有道之國則光明 人君吉昌 百姓安寧. 星者 陽精之榮也 陽精爲日 日分爲星 故其字 從日下生也 釋名云星散 布散於天 月宿. 月爲太陰之精 衆陰之長 以之配日 女主之象 以之比德 刑罰之義 列之朝廷 諸侯大臣之類 行黃道之東謂之靑道 行黃道之南謂之赤道 行黃道之西謂之白道 行黃道之北謂之黑道 黃道內外各四 并黃道爲九道也.)

14) [黃赤道] 해가 말미암는 바를 황도라고 하고 남북극의 中度로 가장 평균이 되는 곳을 적도라고 한다. 황도라는 것은 반은 적도 바깥에 있고 반은 적도 안에 있어서 (적도와) 동쪽으로 角宿 5도 小弱(2/12)에서 교차하고 서쪽에서 奎宿 14도 小強(4/12)에서 교차한다. (黃赤道日之所由 謂之黃道 南北極之中度最均處 謂之赤道 黃道者 半在赤道外 半在赤道內 東交於角五小弱 西交於奎十四小強)

에 圖說에서도 分野說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음양의 상징이자 천문의 중심이 되는 日月의 존재를 임금과 여주에 대응시켜 이해하고, 별과 별자리는 이들을 보필하는 존재인 신하와 국가를 형성하는 각종 기관 및 구성원으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발견되는 占星적 측면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나타난 천문의 한 분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작 목적과 과정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목적과 과정은 천문도 하단에 새겨진 權近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天文圖詩¹⁵⁾

천문도의 石本은 옛날 平壤城에 있었는데, 兵亂으로 인해 강물에 잠겨 유실되었으며, 세월이 오래되어 그 남아 있던 인본(印本)까지도 없어졌다. 우리 전하께서 처음 천명을 받았을 때에, 한 본을 올린 이가 있었는데, 전하께서 이를 보배로 귀중히 여기고 書雲觀에 명하여 돌에다 다시 새기게 하자, 서운관 관원이 진언하기를, “이 그림은 세월이 오래되어 별[星]의 도수가 차이가 나니, 마땅히 다시 도수를 측량하여 四仲月(음력 2·5·8·11월)의 저녁과 새벽에 나오는 中星을 측정하여 새 그림을 만들어 후인에게 보이소서.” 하니, 왕께서 옳게 여기므로 지난 을해년(1395, 태조4) 6월에 새로 中星記 한 편을 지어 올렸다. 옛 그림에는 立春에 昴星이 저녁의 중성이 되는데 지금은 胃星이 되므로, 24절기가 차례로 어긋난다. 이에 옛 그림에 의하여 중성을 고쳐서 돌에 새기기가 끝나자 臣 近에게 명하여 그 뒤에다 誌를 붙이라 하였다. … 홍무 28년(1395, 태조4) 겨울 12월 일¹⁶⁾

15) 詩는 誌의 誤字이다.

16) 權近, 『陽村集』. 「天文圖記」. 右天文圖石本 舊在平壤城 因兵亂沉于江而失之 歲月既久 其印

위 사료는 권근의 『陽村集』에 실린 天文圖誌이다. 이 글은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새겨져 있는 권근의 글과 같은 글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천문도는 국초에 어떤 사람이 옛 平壤城에 남아있던 천문도 석각본을 바쳤는데, 태조가 매우 귀하게 여겨서 印本을 그대로 따라 석각하려 하였으나 書雲觀에서 새로 도수를 측량하여 새 그림을 만들자는 제의를 하였기에 星度の 오차를 교정하여 中星을 새로 측정하고 돌에 새겼다고 하였다.

권근의 글에서 태조 4년 6월에 서운관에서 『中星記』를 바쳐 올렸다고 되어있으며, 권근은 이 새로 측정된 천문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석각 작업에 들어가 당해 12월에誌를 쓴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천문도 제작 작업이 최소 1년이상 걸려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운관 관원이 “사중월(四仲月 음력 2·5·8·11월)의 저녁과 새벽에 나오는 中星을 측정하여” 석각해야 된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천문 관측을 통해 『중성기』가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석각하였을 것이다. 권근의 발문에서 서운관은 태조 4년 6월에 중성기를 완성하여 올렸고, 권근은 이 중성기에 따라 星圖에 석각이 끝난 다음誌를 붙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星圖 석각 완료 시점을 同年 12월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성 측정 날짜를 추산해 본다면 늦더라도 태조 3년 6월경에는 중성 측정이 시작었어야 한다.

실록 기록을 보면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하였다고 한 날짜는 3년 10월 25일이다.¹⁷⁾ 그러므로 서운관의 중성 관측은 천도하기 전에 개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태조는 한양 천도를 위해 각종 役事를 진행하였

本之存者亦絕無矣 惟我殿下受命之初 有以一本投進者 殿下寶重之 命書雲觀重刻于石 本觀上言此圖歲久 星度已差 宜更推步以定 令四仲昏曉之中 勒成新圖 以示于後 上以爲然 越乙亥夏六月 新修中星記一編以進 舊圖立春昴中於昏 而今則爲胃 二十四氣以次而差 於是因舊圖改中星 鐫石甫訖 乃命臣近誌其後 … 洪武二十八年冬十有二月日

17)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25일 辛卯 1번째기사.

고, 태조 4년 9월 29일에 드디어 새 궁궐이 준공되면서¹⁸⁾ 이를 경복궁이라고 명명하였다.¹⁹⁾ 그러나 실제 태조가 경복궁으로 들어간 날짜는 태조 4년 12월 28이다.²⁰⁾ 즉, 태조가 한양에 입성한 시기는 3년 10월경이지만, 그동안 한양에 위치한 다른 거처에서 지내다가 4년 12월에 준공된 경복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양 입성 당시, 천문 관측을 담당하던 서운관의 관리들 모두를 옮겨졌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천문 관측 설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서 전부가 옮겨졌을 리는 만무하다. 태조의 한양 입성 이후로 서운관 관원들은 종종 종묘의 터를 보는 등의 일을 하였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관원들 몇몇만이 한양으로 이동하여 태조 옆에서 조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관원들은 개성에 남아서 천문관측을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태조가 경복궁에 들어가는 시점이 천문도 석각의 완료시점과 맞아 떨어진다. 즉, 완성된 중성기를 바탕으로 새긴 천문도 석각은 도읍을 옮긴 후, 한양의 궁궐에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석각천문도의 모본을 건네받고 측정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본다면 종래의 연구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관측 위도가 개성에 가까운 북위 38도로 계산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맨 하단의 글에서는 권근의 발문과 함께 천문도 제작에 참여한 제작진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 권근이誌를 쓰고, 柳方澤이 推算을 하였고, 僂慶壽가 글을 새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¹⁾ 그 뒤에는 이 작업에 참여한 서운관의 관원들의 이름이 기록

18)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9일 庚申 6번째기사.

19)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7일 丁酉 2번째기사 .

20)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28일 丁巳 1번째기사.

21) 嘉靖大夫 藝文春秋館學士 兼禮曹典書 成均大司成 臣權近 奉教記 嘉靖大夫 檢校中樞院副使

되어 있지만, 權仲和와 盧乙俊 외에는 기록에서 언급된 인물이 없다. 따라서 글을 새긴 설경수를 제외하고 앞서 언급되었던 권근과 유방택 그리고 권중화는 천문도 제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실제 천문계산은 判書雲觀事였던 유방택이 중심이 되어 서운관 관원들이 돕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²²⁾ 이는 천문 계산을 유방택이 담당하였다고 명기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지만, 권중화는 書雲觀領事로서 태조 1년 11월부터 태조 3년 9월에 이르기까지 胎室 吉地 선정문제와 新都 吉地 선정문제로 外方에 나가거나 풍수지리문헌을 조사하는 일이 많았고²³⁾, 권중화가 風水地理 분야에 능통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천문추산일은 유방택이 전적으로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조 3년 9월 9일 병오일 기사로부터 약 1여 년간 실록에서 권중화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다가 태조 4년 윤9월 28일 己丑日 기사에서 神主를 새 종묘에 봉영하고 권중화에게 移安祭를 올리게 하였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 권중화가 이 기간 동안만큼은 천문도 제작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²⁴⁾

兼判書雲觀事 臣柳方澤 奉教推算 中直大夫 校書監 臣俛慶壽 奉教書 書雲觀 領觀事 特進輔國崇祿大夫 門下府事 都評議使司事 集賢殿大學士 臣權仲和 … 兼判事 嘉靖大夫 檢校中樞院副使 盧乙俊 … (『天象列次分野之圖』 肅宗本,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22) 박성래, 2011, 『인물과학사1』, 책과함께, 36~38쪽.

23) 태조 1년 후반에서 초반까지는 태실 입지선정을 위해 형세도 제작에 힘썼고(『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7일 甲辰;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2일 戊申;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7일 癸丑.) 이후 新都 吉地선정으로 外방에 나가거나 문헌 조사를 담당하는 등 풍수지리 분야에서 주로 활약하였다.(『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0일 乙酉;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1일 壬午;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2월 16일;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2월 18일;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2월 23일 癸巳; 『태조실록』 권6, 태조3년 7월 12일 己酉;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9월 9일 丙午.)

24) 권중화는 태조 즉위 이후 고위 관직자로서 使行과 형세도 제작을 비롯하여 여러 일을 맡았기 때문에 몇 달간의 간격이 있더라도 실록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천상열차분야지도』 완성을 앞둔 시점을 기준으로 1여 년간의 행적이 실록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황상 의심스럽다. 특히 실록에서 천문도 제작에 대해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당시 서운관에서 권중화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醫學·地理뿐만 아니라 卜筮에 능했다는 점을 볼 때, 그가 천문에 정통한 인물이 아니었더라도 천문도 제작에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고 보인다. 특히 『천상열차분야지도』의 圖說부분에 들어간 내용들 대부분은 천상의 구역을 나누어 지상에 대응시켜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과 日月星辰이 상징하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권중화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올렸다고 하기보단 천문도 구성과 내

흥미로운 점은 이 천문도 제작 사업에서 중심이 된 인물들이 모두 조선 건국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권근은 조선 개국 세력에 대항하여 고려를 유지시키려 한 인물로 익히 알려진 바 있고, 권중화는 이색의 처숙부이자 윤이·이초 사건에 연루되어 하옥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다.²⁵⁾ 유방택은 실록에서 조선 태조의 日官으로서 공신으로 전하고 있지만²⁶⁾, 실제로는 조선 건국 이후 낙향하여 三隱閣을 세우고 정몽주·이색·길재를 기리면서 고려의 신하로 남고자 하였다.²⁷⁾ 권근과 권중화의 경우 고려 말에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조선 건국 후에 관직에 나아가 활동하였던 것과 달리 유방택은 공신으로 책봉됐음에도 조정에서 활동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 그가 『천상열차분야지도』 제작에 참여한 이력은 특이하다.²⁸⁾

이처럼 星度 수정이나 천문추산과 같은 관측 및 曆算 실무는 유방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내용 구성에는 조선 개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권근과 권중화와 같은 인물들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용 선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5) 『태조실록』 1권, 총서 111번째 기사.

26)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7월 29일 壬申 2번째기사.

27) 鄭以吾, 『郊隱集』, 「金軒先生行狀」

28) 이에 대해 유방택이 천문도 제작에 참여한 동기에 대해서 조선 실정에 맞는 천문도 제작을 통해 정확한 역법정비에 이바지하여 백성들의 삶의 개선에 힘을 보태고자 하였던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 견해가 있는데(박성래, 2005, 「고려 밤하늘 우러른 조선의 반골 천문학자 ‘류방택」, 『과학과 기술』 43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보다는 천문 분야의 전문가이자 권위자로서 조정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태조 2년 7월 29일에 유방택·노을준 등 日官 11명을 공신으로 책봉한 기사가 주목된다. 서운관에서 천문도를 완성한 시점으로부터 대략 2년 앞선 시기에 일관 11명을 태조 즉위에 공로가 있다하여 공신으로 책봉하였는데, 만약 조선 건국 세력이 이 시점에서 천문도 제작을 계획하였다고 상정한다면 이때 유방택·노을준 등 일관에게 공신책봉을 내린 것은 그들에게 천문도 제작을 맡기기 위한 정치적 布石 또는 회유성 책봉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방택의 경우 행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조정에 참여하길 완강히 거부하였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방택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신책봉을 내려 조정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세우고 참여를 유도하려고 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제작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국초에 진행된 국가사업으로서 태조 이성계에게 하늘의 권위를 부여하고, 堯·舜과 같은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에 의해 진행된 사업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권근의 글 뒷부분의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 근은 삼가 생각건대, 예로부터 제왕의 하늘을 받드는 정사는 달력으로 하늘의 시간을 알려 주는 것을 급선무로 삼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堯는 羲和에게 명하여 四時의 차례를 조절하게 하고, 舜은 璣衡을 두어 七政을 가지런히 하였으니, 진실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기를 늦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성스럽고 인자하시므로 선위를 받아 나라를 두신지라, 중외가 안일하여 태평을 누리니 이는 곧 堯·舜의 덕이며, 먼저 천문(天文)을 살펴 중성(中星)을 바루니 이는 곧 요·순의 정치이다. 그러나 요·순이 천문을 보고 기구를 만들던 마음을 구한다면 그 근본은 다만 공경에 있을 뿐이니, 전하께서도 또한 공경을 마음에 두어 위로 천시(天時)를 받들고 아래로 민사(民事)를 부지런히 하시면, 그 신성한 공렬(功烈)이 또한 요·순과 같이 높아질 것이다. 하물며 이 그림을 貞珉에 새겼음에랴! 길이 자손 만대에 보배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²⁹⁾

천문도지의 내용의 전반부가 이 천문도를 각석한 경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면, 후반부는 모두 태조가 천문도를 바로잡아 세운 것은 곧 요·순의 정치를 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특히 “전하께서는 성스럽고 인자하시므로 선위를 받아 나라를 두신지라, 중외가 안일하여 태평을 누리니 이는 곧 堯·舜의 덕이며, 먼저 天文을 살펴 中星을 바루니 이는 곧 요·순의 정치이다.”

29) 權近, 『陽村集』. 臣近竊惟 自古帝王奉天之政 莫不以曆象授時爲先務 堯命羲和而秩四時 舜在璣衡而齊七政 誠以敬天勤民爲不可緩也 恭惟殿下聖武仁明 以禪讓而有國 中外晏然 躋于大平 卽堯舜之德也 首察天文 以正中星 卽堯舜之政也 然求堯舜所以觀象制器之心 其本只在乎欽而已 恭惟殿下亦以欽存諸心 上以奉天時 下以勤民事則神功茂烈 亦當與二帝並隆矣 況此圖勒貞珉 永爲子孫萬世之寶也信矣哉

라는 대목에서는 조선을 개창한 태조는 유교 사상에서 聖君으로 대우받는 堯·舜의 정치를 행하는 군주임을 明記하였다. 그것도 跋文의 반 이상을 할애하여 이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태조를 堯·舜에 비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었던 권근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또한 위 글에서는 이성계가 신하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라갔음에도 이를 선위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堯·舜에 빗대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선양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권근의 이러한 의도적 서술의 배경에는 첫 번째로 조선 건국 세력이 태조의 즉위과정을 정당화하려는 관점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을 꾀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조선의 개국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권근이 이후 조선 왕조에서 녹을 먹는 신하가 된 상황에 대해서 요·순이라는 존재를 끌어와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이 작업에 참여하는 주요 제작진들이 고려의 유신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하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통해 본다면, 이러한 세력들에게는 이미 즉위 과정에서 정통성이라는 가치가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성계를 군주로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대의 성군인 堯舜을 통해 유교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존재로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정통성에 흠결될 사항을 가리고 요·순의 정치를 한반도에서 이행하려는 유교 군주로서의 의의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태조의 즉위를 요순의 선양이라는 것으로 정당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에서부터 이 천문도의 각석 목적과 의미가 이성계의 정통성 확보라는 측면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天觀과 天命認識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태조 4년에 제작된 천문도로서 조선 개국 세력이 태

조의 권위를 하늘에서 찾는 동시에 이성계를 요·순과 같은 유교적 성군과 동일한 위상으로 높여 왕위에 오른 명분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제작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천문도를 제작하였던 것일까. 그리고 천문도와 세계지도를 제작한 배경에는 조선인의 어떠한 관점이 작용했던 것일까. 이러한 점에 의문을 갖고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 의도를 살펴보면 조선의 지배층들이 독자적 天觀에 따른 天命意識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념이 지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조선의 지배층들이 조선의 하늘과 중국의 하늘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천문도에 기록된 分野說의 내용처럼 조선의 지배층들은 旡天의 영역에서 각 지역에 대응하는 하늘의 영역이 있다고 믿었으며 天文은 그 땅을 지켜보는 하늘에서 내려준 啓示와도 같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의 실록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왕이 하연·황보인·박종우·정갑손·정인지·허후를 불러 말하기를 “지금 혜성이 玄菟와 樂浪의 分度에 나타났다하니 재변을 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응당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재변을 사라지게 할 道場을 베푸는 일을 또한 행해도 되겠는가? 고려 때에는 혜성이 나타나면 비록 우리나라의 分度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변을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제 이 혜성은 비록 우리나라에 관계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재변을 사라지게 할 일을 행했다고 해서 또한 무슨 해가 되겠느냐.”라고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옛사람이 재변에 있어서 모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몸을 닦아 반성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성상의 뜻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날의 시급한 일은 백성을 편히 쉬게 하고 군사를 양성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으니 급하지 아니한 일을 제한다면 이밖에 달리 할 만한 일이 없지만, 消災道場은 고려의 弊法인데, 어찌 이것으로 하늘의 재변을 그치게 하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달리 할 만한 일이 없다면 단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몸을 닦아 반성하겠다.”하였다.³⁰⁾

이 기사에서 현도와 낙랑의 분도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燕의 분도에 속한다. 앞서 보았듯 천문도에서 3원 28수를 바탕으로 분도와 열차를 나눈 것은 占星學의 분야에서 전체현상에 의미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점성학에 이용되는 3원 28수의 별자리 체계는 중국의 점성학에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각 분도에 대응하는 지상의 영역은 모두 중국 대륙에 존재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이 체계를 가지고 점성술을 보게 되면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燕의 分度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위 사료를 통해서 세종은 한반도가 실제 현도·낙랑 분도와 관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조선의 하늘에서 혜성을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分度와 관계가 없다고 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고려 때 分度와 관계되지 않더라도 災變을 다스렸던 전례와는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세종이 分度가 다르더라도 조선의 하늘에서 나타난 災變에 대해서는 조선의 국왕이 이를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

세종의 이러한 인식에서는 중국에서 하늘의 분야를 나눈 것과 상관없이 조선의 왕은 조선의 하늘을 주재하는 존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조선에서의 정치주체인 왕은 어떤 형태로든 자연의 災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고려 때부터 있어왔음을 언급하며 이것이 조선의 상황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하늘을 주재하는 과거 왕조의 왕대부터 시행해온 전통적인 천문 문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시 조선은 중국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명에게 冊封을 받는 외교적 의례를 중시하였다. 이는 조선에서 새 왕이 즉위하면 천자의 印信과 誥命을 받아 조선왕으로 인준받기를 바랐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볼 때, 조선은 명과 조공관계 안에 편입되어 있는 藩邦 또는 荒服諸侯로

30) 『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2월 23일 己巳 1번째기사.

서 취급하였고³¹⁾, 조선 또한 중국과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여 한반도 내에서 조선왕조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관계를 강조하게 되면 조선의 왕은 중국 천자의 제후로서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강화시키게 되고, 결국 위의 사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조선의 분도와 상관없는 재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세종의 인식처럼 조선 왕이 조선에서의 재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결국 조선 왕실은 중국과는 달리 별도의 천명을 받아 한반도를 다스린다는 논리가 성립한다.³²⁾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도 여느 왕조와 다름없이 天變에 대해 주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천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일찍이 고조선 이래로 각종 제천 행사를 통해 하늘의 위상을 지상의 군주에게 부여하고 있었고, 삼국시대부터는 천지의 이변을 천인감응의 시각에서 주시하여 재이를 다스리려 해왔다.³³⁾ 이러한 천문 문화는 고려와 조선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왕조의 변혁 사유에 天命의 여부가 개입되는 天命觀으로 발전·응용되었다.³⁴⁾ 예를 들어, 왕건의 훈요 십조에 보이는 舜帝가 제위를 얻을 수 있었던 근거로 ‘得民心’이라 하였고, 조선 성립의 명분으로 제시한 우왕과 창왕에 대한 王統不正說 역시 민심으로 공인된 천명의 요소가 부재하였다는 함의가 들어가 있었다.³⁵⁾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民意와 民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정도전을 비롯한 이성계 일파에 의해 이성계의 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이성계의 등극을 서두를 때에 “천명과 인심이 이미 소속된 데가 있는데, 어찌 빨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지 않느냐”³⁶⁾라고 공양왕을 겁박할 때도 천명과 민심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태조 2년(1393) 사헌부 상소에서는 천명에 대

31) 한영우, 1997, 『우리역사』, 서울:경세원, 229~230쪽.

32) 박성래, 2005, 『한국과학사상사』, 유스북, 473쪽.

33) 광신환, 1992. 「三國時代 儒學의 災異思想」, 『동양철학사상연구』 참고.

34) 윤사순, 『16세기 天命思想과 儒敎政治』, 46쪽.

35) 윤사순, 위의 책, 46쪽.

36) 『태조실록』 권2 태조 1년 8월 경신

한 용어를 더욱 극명하게 사용하고 있다.³⁷⁾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실린 권근의 발문에서는 이 ‘天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堯·舜의 직접적 후계자로서 이성계를 강조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나 천문사상을 무시한 채 서술하고 있다.³⁸⁾ 이에 따르면 제후국의 위치에 있던 이성계가 堯·舜과 같은天命을 받을 리가 만무한데도 권근은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태조는 자신이 천명을 받아 왕위에 오른 것은 명 태조가天命을 받아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같은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다음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의 일어남은 하늘이 명령하게 되고 世類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역사책을 상고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너그럽고 인자한 큰 도량으로 王氏의 衰亂한 끝을 맞아서, 天命이 돌아오고 여러 신하들이 추대하여 문득 왕위에 오르셨으니, 고려 왕조의 黨與로서 죄가 마땅히 멸족 될 만한 사람도 모두 관대한 용서를 입어 머리를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李扶와 許咳 등은 전하께서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게 해 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요망스런 말로 선동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의혹시켰으니, 마땅히 臺省의 法官으로 하여금 巡軍府와 함께 국문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 하였다. 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제왕의 일어남이 世類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오래 되었다. 지금 明나라 황제도 또한 匹夫로서 천하를 얻었으니, 이 무리들이 世類에 관계된다는 말을 어찌 마음에 두겠는가? 더군다나, 우연히 그 아내와 첩과 더불어 안방에서 말했으니, 어찌 鞫問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에 李扶를 지방으로 귀양보내고, 許咳의 관직을 파면하게 하였다.³⁹⁾

위 사료는 이부와 허해 등이 태조의 즉위에 대해 이것이 世類와 관계된다

37) 『태조실록』 권2, 태조1년 9월 갑오.

38) 박성래, 2005, 앞의 책, 476쪽.

39)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16일 갑오 1번째기사

고 얘기한 것을 두고 이를 엄하게 문초해야 한다는 사헌부에 상소에 태조가 명나라 황제도 필부로서 천하를 얻었으니 자신의 즉위에 대해서 세류와 관계된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곧 조선왕조를 개창하고 왕으로 등극한 것은 천명에 달린 일이지 세류에 따른 일이 아니라는 점을 태조가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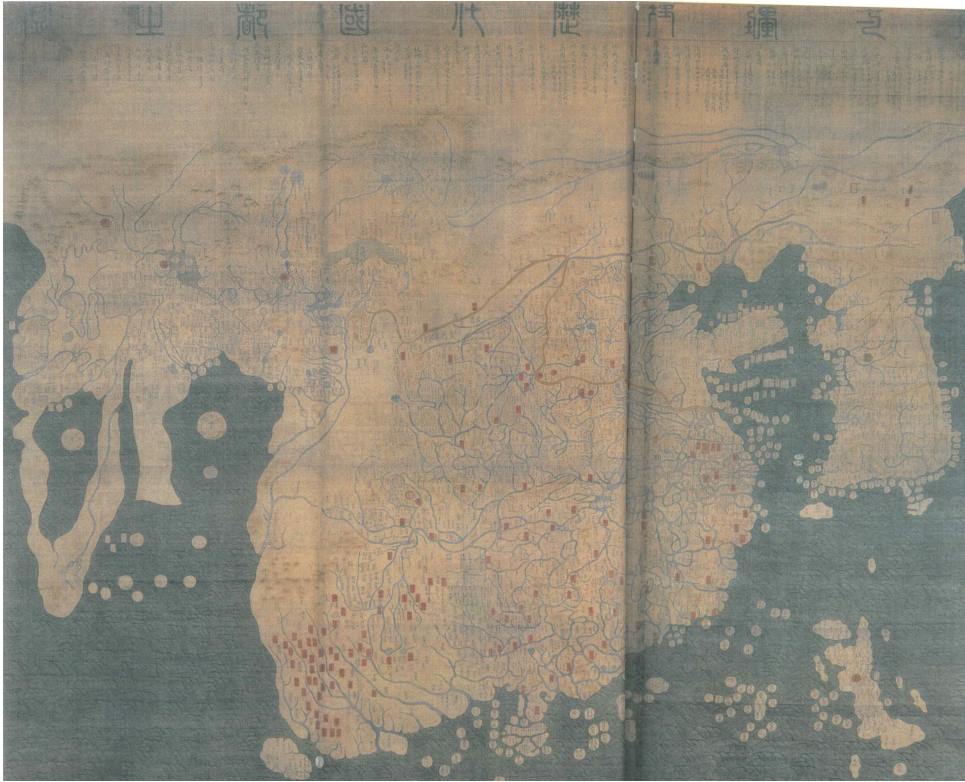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제왕에게 통치의 소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존재가 상제와 天이라고 할 때, 왕은 자신에게 통치의 권한을 부여해준 상제와 天에 대해 祭祀의 형식을 빌어 봉송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왕의 제천의식은 왕조의 연원이 상제와 하늘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왕통의 독자성 또는 주체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역대 중국 왕조들은 스스로 천자임을 자처하고 자신만이 원구단에 제천할 자격을 가지며,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제후국으로서 원구에서 제천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태도로 인해, 조선은 명을 사대하는 입장에서 제천의례에 대해 국초에 많은 갈등을 하였다. 특히 조선이 한반도의 왕조의 정통성을 갖는다는 의미로 단군에게 대한 제사를 역설하면서도 원구의 폐지를 청하였으며, 때론 하늘에 제사지내지 못한다면 동쪽 하늘을 관장하는 東方靑帝에게 제사지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였다.⁴⁰⁾ 다만 이러한 논의 이후 조선에서는 명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결국 제천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더 이상 제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이에 조선의 지배층 사이에서 수많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은 조선의 지배층들이 독자적 천명의식을 관철하려고 하는 입장과 명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하던 입장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있었으며 이들이 서로

40)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2월 6일 임진 4번째기사.

Ⅲ.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세계인식

1. 龍谷大本의 구성과 내용

[도판 2]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龍谷大學校 寫本. 용곡대학교 도서관 소장 (오상학, 2011,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인용)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1402년(태종 4) 8월에 좌의정 감사형과 우의정 이무가 발의하고 의정부의 김상(정 5품) 이회가 제작해서 바친 세계 지도이다.⁴¹⁾ 이 지도는 중국대륙을 중앙에 가장 크게 배치하고, 중국 대륙의 동쪽

41) 문중양, 2006, 『우리역사 과학기행』, 동아시아, 96쪽..

에 조선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그렸으며,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인도, 아프리카대륙, 아라비아반도, 이베리아반도, 유럽대륙 및 지중해를 각각 표현하여, 동시대에 그려진 세계지도 중에서 최초로 가장 넓은 지역을 그려낸 세계지도이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상단에 篆書로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라고 쓰여 있으며, 그 밑에는 “歷代帝王國都”가 기재되어 지명을 나열하고 이 지역에 어떠한 왕조가 도읍을 정했는지 또는 어떤 세력이 거점으로 삼았는지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을 택한 이유는 각 정치주체가 수도로 삼았던 지역이 겹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역대제왕국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들은 명대의 지명이 아니라 원대의 행정지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도의 지명이 원대의 지명을 따르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두 번째로 고대 중국의 성군이라 일컫는 舜과 禹의 수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지도를 제작하였던 조선의 지배층들이 유교적 성군의 표상인 舜과 禹에 대한 尊崇的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遼와 金 그리고 西夏와 같은 이적 국가의 수도 또한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西夏의 경우 大夏라는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宋이 스스로를 中華로 보고 大夏를 이적국가로서 보았을 때 썼던 명칭인 西夏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화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서술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元代の 저본 지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조선에서 이 지도를 제작할 때 大夏의 명칭을 西夏로 고쳐 쓰지 않았다는 점만 하더라도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지도 제작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역대제왕국도」 아래에는 세계지도 그림을 첨부하였는데, 이 지도에는 위에 언급되었던 역대 국도에 내용에 따라 직사각형과 원형으로 주요 도시

에 대해 표시를 하여 수도의 위치를 지도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 龍谷大本의 세계지도 그림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當代에 습득할 수 있었던 모든 지도를 聚合하여 재구성한 지도였다. 지도의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는 天圓地方을 표현한 전통적인 동양 지도의 틀을 사용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바다를 녹색, 하천을 청색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슬람 지도학의 표현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²⁾ 또한 전통 중국의 지도형식인 華夷圖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중국의 양옆으로 外延을 넓혀 중국 왕조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천하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세계지도의 표제를 混一圖⁴³⁾라고 하여 元代 지도의 형식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지도가 종래의 지도들을 취합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조선 부분이 지도에서 크게 부각되어 있다. 조선부분의 지도는 이희의 『팔도도』를 기초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프리카, 유럽 대륙보다 클

42) 미야코 노리의 경우 조선에서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드러나는 것은 元代에 제작된 지도에서 이슬람 지도학의 표현방식들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원대의 지도를 조선에서 입수하여 그대로 차용하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들어간 예라고 보았다. 그러나 단순히 저본 지도의 짜깁기였다면 한반도 부분에서 이러한 표현 양식이 배제된 채 그려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표현 방식을 수용하여 한반도 부분에서도 바다와 하천을 색깔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 또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제작 사업은 조선 건국 초기에 진행된 국가사업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같은 맥락에서 기획되었다고 상정하였을 때, 그 제작 기간이 『천상열차분야지도』보다 더 오래 걸렸다는 점에서 이 세계지도 제작에 들인 조선 건국 세력의 노력을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조선 건국 세력이 위와 같은 표현 방식을 놓고 전통적인 동양 지도의 표현방식이 아님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미 조선에서는 원대에 들어온 이슬람 과학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인식이 세종 때에 이르러 각종 과학 기술의 도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도입된 이슬람 지도학의 표현방식은 당시 제작진들이 저본 지도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 중에서 효과적이라 생각한 방식을 취사선택 하여 도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3) 이러한 용어는 元代에서 볼 수 있는 지도의 제목이다. 원은 한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夷狄인 몽골족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중화와 이적을 차별하던 전통적인 화이관을 따를 수 없었다.(한영우, 1999, 앞의 책20쪽.) 그 대신 중화와 이적을 하나로 묶는 통일적인 개념인 ‘혼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혼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도의 제목 표기는 이후 직방세계 중심의 세계지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조선에서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이래로 세계지도의 제목이 ‘혼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상학, 2011, 앞의 책, 124쪽.)

정도로 매우 과장되어 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중국 대륙의 크기에 비하면 한반도는 작게 그려졌지만, 서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해보면 거의 엇비슷한 크기로 묘사되어 있다. 또, 중국 본토와 비교해도 실제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점은 곧 이 세계지도에서의 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제작 목적과 과정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제작 경위에 대해서는 권근의 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권근의 발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하는 지극히 넓다. 안으로 중국에서 밖으로 사해에 닿아 몇 천만 리나 되는 지 알 수 없는 것을, 요약하여 두어 자 되는 幅에다 그리니 자세하게 기록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도를 만든 것이 대개 疏略한데, 오직 吳門 李澤民의 聲教廣被圖는 매우 상세하게 갖추었으며, 역대 제왕의 國都沿革은 天台僧 清濬의 混一疆理圖에 갖추 실렸다. 建文 4년(1402, 태종2) 여름에 좌정승 上洛(본관) 金士衡·우정승 丹陽(본관) 李茂가 정사를 보살피는 여가에 이 지도를 참고 연구하여 檢詳 李薈를 시켜 다시 더 상세히 교정하게 한 다음에 합하여 한 지도를 만들었다. 遼水 동쪽과 우리나라 지역은 이택민의 廣輿도에도 또한 많이 결략 되었으므로,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를 더 넓히고 日本 지도까지 붙여 새 지도를 만드니, 조리가 있고 볼 만하여 참으로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다. 대저 지도를 보고서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아는 것도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한 도움이 되는 것이니, 두 공이 이 지도에 정성을 다한 데에서도 그 규모와 국량의 방대함을 알 수 있다. 近은 변변치 못한 재주로 參贊이 되어 두 공의 뒤를 따라 이 지도가 완성됨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매우 다행하게 여기는 바다. 평일에 책에서 강구하여 보고자 하던 나의 뜻을 이미 이루었고,

또 내가 다른 날 물러가 시골에 있으면서 누워서 유람하는 뜻을 이루게 됨을 기뻐하며 이 말을 지도 아래 쓴다. 이해 가을 8월 일⁴⁴⁾

이 내용을 통해 1402년(태종2) 여름에 좌정승 김사형과 우정승 이무가 이택민의 『성교광피도』와 청준의 『혼일강리도』를 검토하고 검상 이회로 하여금 조선과 일본지도를 합쳐 편집하여 하나의 지도로 만들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김사형(1341~1407)과 이무(1409년 사망) 두 사람은 조선 왕조의 초기에 좌정승과 우정승이라는 고위 관직을 지낸 인물로서 두 사람 모두 재임 중에 중국에 사신으로 경력이 있던 인물들이다. 김사형의 경우 1398년 태조 7년 12월 28일에 명 건문제의 등극을 하례하기 위해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1399년 정종 1년 6월 27일에 귀국하였다.⁴⁵⁾ 지도 제작이 1402년 여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김사형의 사행 길에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저본이 될 지도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⁴⁶⁾ 이무의 경우 태조 3년(1394) 8월 8일에 개성 윤으로 도를 통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명에 하례하기 위해 사신으로 보내졌고 태조 4년(1395) 1월 2일에 귀국하였다. 이무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제작시기보다 8년이나 이른 시기에 중국에 사신으로 갔었기 때문에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저본이 될 지도를 이무의 사행 길에 입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는 드물지만, 세계

44) 권근, 『양촌집』. 天下至廣也 內自中國 外薄四海 不知其幾千萬里也 約而圖之於數尺之幅 其致詳難矣 故爲圖者率皆踈略 惟吳門李澤民聲教廣被圖頗爲詳備 而歷代帝王國都沿革 則天台僧清濬混一疆理圖備載焉 建文四年夏 左政丞上洛金公 士衡, 右政丞丹陽李公 茂 燮理之暇 參究是圖 命檢詳李蒼更加詳校 合爲一圖 其遼水以東及本國疆域 澤民之圖亦多闕略 方特增廣本國地圖 而附以日本 勒成新圖 井然可觀 誠可以不出戶而知天下也 夫觀圖籍而知地域之遐邇 亦爲治之一助也 二公所以拳拳於此圖者 其規謨局量之大可知矣 近以不才 承乏參贊 以從二公之後 樂觀此圖之成而深幸之 既償吾平日講求方冊而欲觀之志 又喜吾他日退處環堵之中而得遂其臥遊之志也 故書此于圖之下云 是年秋八月日 誌.

45)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27일 병인 2번째기사.

46) 개리 레드야드 지음, 장상훈 역, 2011, 『한국 고지도의 역사』, 소나무, 50쪽 ; 이찬, 1992, 「朝鮮前期의 世界地圖」, 『학술원논문집』 31집, 166쪽; 辻稜三(和田稜三), 「李朝の世界地圖」, 『月刊韓國文化』 3卷 6號, 27面.

지도 제작이 국초부터 천문도 제작과 함께 계획된 사업이었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제작이 완료된 1402년 9월에 김사형은 좌정승, 이무는 우정승의 직위에 있는 고위 관료였으며 지도 제작의 실무는 전문가인 이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를 만드는 실제 작업에 거의 간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⁴⁷⁾ 그럼에도 권근이 발문에서 김사형과 이무의 공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때 두 사람 모두 저본 입수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중국에서 가져온 지도 중에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저본이 될 지도를 선별하는 과정에는 적극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사형과 이무 모두 의정부의 고위 관료로서 지도제작의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도제작에서 이 둘의 공헌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근의 역할도 실제로는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⁴⁸⁾ 권근의 발문을 보면, 권근은 김사형과 이무의 보좌 역할을 담당하고 지문(誌文)을 작성했다고 한다. 또한 권근은 앞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발문을 썼던 인물이었다. 이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조선 건국 초기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국초에 진행된 특히 조선의 위상과 왕권에 직결된 사업에 모두 참여하여 발문을 썼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게다가 권근 또한 김사형과 이무처럼 중국에 다녀온 경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권근은 고려 말에 급제해서 조선 초 태종 때까지 활동한 대표적인 개혁파 유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2차례나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기록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권근 또한 세계지도를 제작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식견을

47) 개리 레드야드 지음, 장상훈 역, 2011, 앞의 책, 소나무, 50쪽.

48) 개리 레드야드 지음, 장상훈 역, 2011, 앞의 책, 50쪽.

가진 인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세 사람이 지도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저본을 전별하여 사업계획을 실행하는 인물이었다면, 이회는 실제 지도 제작의 실무를 맡은 인물이었다.⁴⁹⁾ 이회는 『팔도도(八道圖)』를 제작한 경력이 있는 지도 전문가였으며,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조선 부분은 『팔도도』를 그렸던 이회의 작업의 결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⁵⁰⁾ 이와 관련하여 1402년(태종 2) 5월에는 의정부에서 본국지도(本國地圖)를 바쳤다는 기록⁵¹⁾이 있는데, 이때 진상된 지도가 이회의 팔도도일 가능성이 높다.⁵²⁾ 당시 이회의 관직이 의정부 낭관인 검상이었다는 점이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저본 지도의 소략한 부분을 수정하여 반영한 부분으로 요동과 조선 외에 일본도 있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수록된 일본지도의 유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종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실록에서는 “朴敦之가 1401년 봄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히슈의 우두머리(肥州 守)인 미나모토 미츠스케(源詳助)로부터 일본지도를 얻어 보았는데 一岐島와 對馬島가 누락되어 이를 보충한 후 모사하여 돌아왔다. 그 후 1420년(세종 2년)에 예조판서 許稠에게 기증하니 허조는 이듬해 工人을 시켜 책으로 장정하여 바쳤다. 그러나 그림이 세밀하여 알아보기 어려우므로 1435년 여름 5월에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도화원에서 고쳐 모사하도록 하였다.”고 되어있다.⁵³⁾

일본 전문가이자 무인(武人)이었던 박돈지는 적어도 두 번 일본을 여행했는데, 한번은 1398~1399년이고, 또 한번은 1401~1402년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한 장의 지도를 완성하여 돌아온 것이다.⁵⁴⁾ 이러한 실록 기사에 의거하

49) 『성종실록』 권 138, 성종 123년 2월 13일 壬子 6번째기사.

50) 문중양, 2006, 앞의 책, 100쪽.

51)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5월 16일(戊戌)

52) 오상학, 2011, 앞의 책, 100쪽.

53) 『세종실록』 권 80, 세종 20년 2월 19일(계유).

54) 개리 레드야드 지음, 장상훈 역, 2011, 앞의 책, 55쪽.

여 국내에서도 1401년에 일본에서 돌아온 박돈지의 지도를 바탕으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일본지도가 완성되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⁵⁵⁾

결론적으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중국에서 입수한 두 지도와 이회가 그린 최신의 조선지도 그리고 박돈지 또는 그 이전부터 조선 혹은 고려에 존재하고 있었던 일본지도를 바탕으로 최신의 세계지도를 제작한 것이라는 점을 제작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중국에서 입수한 저본 지도가 있었음에도 조선에서 최신의 세계지도를 제작한 것은 왜일까. 이러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제작 목적에 대해서는 우선 권근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권근이 지도를 제작한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이다. 먼저 “지도를 보고서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아는 것도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치국의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서 지도를 제작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국가 경영을 위한 자료로서 제작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지도 제작의 일반적인 제작 목적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제작한 직접적인 제작 목적이라기보다 위로는 천문을 살피고 아래로는 지리를 살피는 書經에서 언급된 이상적인 정치를 이행하려 한다는 목적으로 언급된 것이다.

오히려 “遼水 동쪽과 우리나라 지역은 이택민의 광피도에도 또한 많이 꺾략

55) 그러나 오상학은 앞서 제시한 1438년(세종 20) 2월 19일의 실록 기록을 살펴보면, 유의손의 지문에 박돈지가 일본에서 가져온 일본지도를 예조에 준 것은 귀국한 해인 1401년이 아니라 1420년이며 예조판서 허조가 이듬해에 책으로 장정하여 올렸다고 하였으며, 박돈지의 지도가 너무 세밀하여 열람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 고쳐 그린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사본에 그려진 일본지도는 열람이 어려울 정도로 세밀하지는 않고 다소 소략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제작에 이용된 일본지도는 박돈지가 가져왔던 지도보다는 그 이전에 조선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지도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하였다.(오상학,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2011, 99~100쪽.) 이와 관련하여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처음으로 자세히 분석한 아오야마 사다오도 이때 사용된 일본지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조선에 왔는지 확실치 않지만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던 1402년을 전후하여 비교적 정확한 일본지도가 조선에 존재했던 사실은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青山定雄, 1938, 『元代の地圖について』, 『東方學報』 8冊, 40쪽.)

되었으므로, 이제 특별히 우리 나라 지도를 더 넓히고 日本 지도까지 붙여 새 지도를 만든다.” 라는 문장에서 이 지도의 직접적인 제작 목적을 살펴볼 수 있다. 권근 또한 이 문장을 위 문장보다 앞쪽에 배치하여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제작 목적이 기존의 천하도에서 간략하게 표현된 요동과 한반도 지역 그리고 일본에 이르는 海東 지역까지 지리 정보를 추가하여 새로운 천하도를 만드는 데에 있음을 밝혔다.

권근이 이와 같은 제작목적을 밝힌 데에는 기존의 천하도가 중국 중심의 세계지도였기 때문이었다. 본래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지도인 華夷圖계열의 세계지도는 중국과 그 주변에 있는 이적국가를 그려서 자신들이 中華임을 드러낸다. 대표적으로, 중국 송나라 때 제작된 『華夷圖』(1136년)를 들 수 있는데, 이 지도에서는 중국의 지역만을 자세하게 그려 넣었고 한반도 부분은 왼쪽 절반만 그려져 있어서 반도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세계지도를 조선에서는 그대로 그리거나 수용하여 세계지도로 만들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조선의 지배층들은 기존에 입수하였던 중국의 세계지도와 조선과 그 주변 국가들의 상세한 지리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세계지도의 제작을 계획하였던 것이다.

3. 세계인식의 내용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토대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나타나는 세계인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중국 문명을 중심에 두고 천하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중화 외의 문명인 아라비아나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도 포함하여 천하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는 원대에 제작된 중국지도 및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당대까지 발견되었던 거의 모든 지역을 통합하

여 묘사하고 있다. 이는 원나라가 거대한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아라비아, 유럽, 아프리카 등을 원나라에 세계지도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조선에서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의 대표적인 예가 주사본의 『輿地圖』, 이택민의 『聖教廣被圖』, 청준의 『混一疆理圖』이다.

이택민의 『성교광피도』와 청준의 『혼일강리도』는 권근이 발문에 밝힌 그대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저본으로 활용되었던 지도이다. 원대에 제작된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는 지도의 명칭만 보아도 華夷圖와는 그 성격이 다르게 느껴진다. 따라서 이 저본을 선택하여 세계지도를 제작하려고 했던 조선의 지배층들은 비교적 광대한 영역을 묘사하고 있는 세계지도를 저본으로 선택하여 조선의 세계지도를 만들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통해 조선의 지배층들이 보다 넓은 지역을 천하의 공간으로 상정하였고, 또 그 속에서 중화세계와 조선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점은 16세기에 이르러 조선에 주자 성리학이 정착하고 심화됨에 따라 중국 대륙과 조선 외의 세계를 지도에서 삭제하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즉 아라비아, 유럽, 아프리카의 지역이 사라지고 중화와 조선만이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15세기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나타난 조선 지배층의 세계인식은 보다 그 지평이 넓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직 조선에 주자 성리학이 안착되지 않았던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개방적인 천하인식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歷代國都의 기록에서 夷狄 국가로서 중국 대륙을 차지했던 국가의 수도에 대해서도 기록함으로써 중화 문명에서 발흥하지 않았던 국가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는 과거 왕조의 수도가 겹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명을 열거한 후

그곳을 수도로 삼거나 거점으로 삼았던 국가 또는 세력들을 열거하였는데, 여기에는 元의 수도에서부터 거란의 遼와 여진의 金의 여러 수도 그리고 西夏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세력을 떨쳤던 국가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원의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원의 수도나 4대한국의 수도에 대해서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조선 그리고 일본의 지도를 합쳐 새로운 세계지도를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한쪽이 아닌 夷狄 국가들의 수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조선의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념이 결코 중화중심적 사상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표현한 천하의 모습이 중화적 세계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국을 가장 큰 대륙으로 묘사하여 지도 중심에 배치한 것은 분명 중화적 세계 인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화이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그려졌던 전통적인 중국의 세계지도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명과의 조공책봉과 같은 외교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서양의 세계마저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은 동아시아 이외의 세계를 인지하고 실제의 세계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중국 중심의 세계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근거라고 생각된다.

물론 서양 세계에 대해 묘사한 것을 중앙에 위치한 중국의 천하, 곧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⁵⁶⁾ 그러나 서양 세계에 대한 묘사를 들어 중화주의적 세계관의 지평이 넓힘으로써 중국을 과시하려는 소재로 이용하였다는 것은 성리학적 이념의 수용이 가속화 되는 16세기에 들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그려진 지역이 동아시아로 축소

56) 최창모, 2013, 위의 논문 참조.

되는 현상과는 相馳하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직접적 교류가 없는 서양의 세계마저 지도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천하의 지평을 중국에 한정하지 않고 더 넓게 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조선 초기의 지배층들에게 이러한 인식이 가능하게 된 이념적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말선초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천하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麗末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던 천하관의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인식의 연원이 고려 때에 존재했던 多元的 天下觀⁵⁷⁾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고려에 앞서 고구려 때부터 한반도에서는 전체 世界를 놓고 勢力圈의 정치주체에 따라 개별의 천하를 설정하는 天下觀을 형성하고 있었다.⁵⁸⁾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中國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東北亞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백년이상 유지하였던 경험을 통해 고구려 또한 天孫이 세운 나라로 東北亞天下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⁵⁹⁾ 이러한 인식은 皇帝와 可汗과 같은 정치주체를 인지하면서, 그들이 지배력을 과시하는 세력권을 또 다른 天下로 인지하고, 東北亞에서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新羅·百濟와 東·北 夫餘를 고구려에 종속된 주변 국으로 인지하여 고구려의 天下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권으로 구성된 개별의 天下가 당시 世界로서 동아시아 전역을 이룬다고 생각하였다.

고려는 이러한 天下觀을 갖고 있었던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표명한 나라이자, 후삼국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통일왕조로 樹立된 국가였다. 당시 遼·金으로 이어진 북방왕조와 宋 그리고 고려가 공존하고 있었던

57) 盧明鎬, 1997,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的 天下觀」, 『震檀學報』 83 ; 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58) 盧泰敦, 1988, 위의 논문 참조.

59) 盧泰敦, 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동아시아 국제 상황 속에서 고려의 지배층들은 크게 3가지의 天下觀을 가지고 있었다.⁶⁰⁾ 첫 번째가 중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두는 華夷論的 天下觀으로 金富軾과 같은 儒家 계열에 속하는 인물들이 주장했던 천하관이다. 두 번째는 고려만이 유일한 천하의 중심이라는 폐쇄적이지만 자주적인 天下觀이다. 세 번째로, 중국 등의 천하와 별도로 존재하는 고려의 천하가 있다는 생각인 자주적이면서 개방적인 성격의 多元的 天下觀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고구려의 天下觀과 비슷한 성격의 天下觀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다원적 천하관은 고려 전·중기에 걸쳐 대체로 주류를 이루었던 天下觀이었다.⁶¹⁾

고려인들의 다원적 천하관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당시 고려인들의 글들에서 고려의 군주를 皇帝·天子로 칭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의 군주를 天子로 칭하는 것은 고려 또한 天命을 받은 군주로 고려 또한 독자적인 천하의 중심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⁶²⁾ 특히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는 이러한 독자적인 천하의 중심 국가로서의 전통을 동명신화에서 찾아 고대까지 소급하려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⁶³⁾

이러한 고려의 多元的 天下觀은 개별의 天下마다 風土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 고대의 강역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 특히 고려의 경우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다원적 천하관을 전개하고 있었다.⁶⁴⁾ 그러나 이러한 다원적 천하관은 원의 지배를 받게 되는 원 간섭기 이후로 크게 위축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⁶⁵⁾ 충렬왕때 간행된 이승휴의 『제왕운기』와 같은 저서에서는 여전히 “遼東別有一乾坤 斗與中朝區以分…”이라

60) 盧明鎬, 1997, 위의 논문, 314쪽.

61) 盧明鎬, 1997, 위의 논문, 314쪽 참고. 고려 태조대 이후 무신집권기에 이르는 기간에서, 화이론자들이 주도한 것은 성종대 전반기와 인종대 후반에 불과하고, 자국중심 천하관이 주도한 것은 인종대 중반에 불과하다. 그 외에 나머지 시기는 대부분 다원적 천하관이 주도하였는데, 그만큼 다원적 천하관은 적어도 지배층에서 주류를 이룬 천하관이라 할 수 있다.(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34~35쪽.)

62) 盧明鎬, 1997, 위의 논문, 315쪽.

63) 盧明鎬, 1997, 위의 논문, 315쪽.

64) 배우성, 2000, 「朝鮮後期 實學者들의 國土觀과 地域認識」, 『韓國史研究』 108호, 82쪽.

65) 김성환, 2008, 「鄭夢周의 華夷論의 歷史觀」, 『圃隱學研究』 2집, 66~67쪽.

하여 元의 천하와 또 다른 고려의 天下를 상정하려는 인식을 볼 수 있지만, 원의 간섭을 받고 있는 고려의 상황으로 인해 종래의 주류였던 다원적 천하관보다는 화이론적 천하관으로 힘이 실리면서 이를 통해 고려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한다. 즉, 고려 후기에는 다원적 천하관을 이야기하면서도 중원에서 원의 정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려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小中華論으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중화를 제외했을 때 고려만이 유일하게 중화와 비견될 수 있다는 天下觀으로 전개한 것이다.⁶⁶⁾

그러나 고려 말에 부상했던 화이론적 천하관은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화이론적 천하관과는 동일시할 수 없다.⁶⁷⁾ 漢族 王朝인 唐·宋·과 북방민족이 세운 왕조인 遼·金·元의 흥망성쇠를 옆에서 지켜봐온 고려인들의 화이론적 천하관은 국제 정세에 따라 천하의 중심이 바뀔 수 있다는 형세문화론적 화이관⁶⁸⁾의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이다.⁶⁹⁾

게다가 고려 말에 부상한 화이론적 천하관이 주류를 이뤘다고 해서 기존의 다원적 천하관이나 자국중심의 천하관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도 아니었

66) 도현철, 1999, 『高麗末士大夫의 政治思想研究』, 일조각, 102~119쪽 및 195~207쪽.

67) 김성환, 2008, 앞의 논문, 69쪽.

68) 형세문화론적 화이관에 대해서 유경아와 김성환의 연구가 시대별로 대별되는데, 특히 고려 말기 중국 대륙에서 명이 중원의 覇者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원명교체기를 겪었던 정몽주의 천하관이 형세문화론적 화이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했다. 김성환의 경우, 고려말의 정몽주의 천하관에서 형세문화론적 화이관의 성격이 미약하나마 존재한다고 파악하였으나, 유경아는 원명교체기에 나타난 정몽주의 천하관은 공양왕대에 이르러 한족 중심의 의리 명분론적 천하관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즉 성리학의 보급과 사상적 이해가 심화되면서 정몽주의 천하관이 명 중심의 성리학적 천하관으로 변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 예로 정몽주의 시문에서 명 중심으로 하나가 된 천하는 이제 아무런 걱정 없는 太平世를 맞이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들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당시 형세문화론적 화이관에서 명 중심의 성리학적 의리론이 강하게 작용한 화이론적 천하관 또한 형성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포은의 천하관 하나만을 가지고 전체 고려의 성리학자들의 천하관이 모두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는 점과 포은 또한 처음부터 한 가지의 천하관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견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김성환, 2008, 『鄭夢周의 華夷論의 歷史觀』, 『圃隱學研究』 2집, 포은학회, 유경아 토론문 참조)

69) 유경아, 1996, 『鄭夢周의 政治活動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유경아, 2007, 『高麗末 親明外交와 圃隱 鄭夢周의 外交觀 - 恭愍王~禡王初를 중심으로』, 『圃隱學研究』 1, 포은학회 ; 김성환, 2008, 앞의 논문 86쪽.

다.⁷⁰⁾ 예를 들어 太古 普愚가 공민왕에게 한양으로 천도를 하면 36국의 조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던 것도⁷¹⁾, 일부 고려의 지배층들은 여전히 고려중심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권근이 작성한 1388년의 표전문을 살펴보면, 다원적 천하관의 한 형태로 중화 문화권과 한반도 문화권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저희 나라는 멀리 동떨어진 땅에 있어, 협소하기로는 실로 벼루와 같으며, 메마르기로는 돌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동쪽 모퉁이로부터 북쪽 변방에 이르기까지 산과 바다로 막혀 형세가 매우 편협합니다. 그러나 조상들 때부터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⁷²⁾

이 표전문은 고려국왕이 명 황제에게 보내는 외교문서로 당시 명의 철령위 설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⁷³⁾ 이 때문에 권근은 명 황제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고려를 낮추고 겸양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권근은 중국과 고려의 구역이 정해져있었다고 언급하며 문화권의 차이를 상기시키고 있다. 권근의 발언은 한반도의 정치·문화적 독자성 또는 자주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말이다⁷⁴⁾ 이는 ‘조상들 때부터’라는 언급이 더해져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에 세워진 국가는 중화와 다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披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 고려 사회의 지배층들이 모두 화이론적 천하관으로 귀결되어 보편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70) 김성환, 2008, 앞의 논문, 70쪽.

71) 『고려사』 권 106, 열전 19, 尹譜 附 尹澤.

72) 권근, 『양춘집』 권 24, 『事大表箋類』 1쪽.

73) 김문용, 2009, 「동국의식과 세계 인식-조선시대 집단적 자아의식의 한 단면」, 『국학연구』 제14집, 125~126쪽.

74) 김문용, 2009, 위의 논문, 127쪽.

다만, 고려 말에 존재했던 화이론적 천하관의 계열들은 조선 건국을 주도한 지배층들, 특히 주자 성리학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했던 성리학자들에게 계승되었고, 성리학자들에 의해 조선의 국가운영체제가 형성되어 가면서 화이론적 천하관이 조선의 천하관 또는 세계관에서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주류였다고 하여 종래에 있었던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이 絶滅된 것은 아니었다. 15세기의 조선의 지배층들의 세계관속에서는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권을 분리시켜 이해하고 있는 인식, 즉 한반도의 정치·문화적 독자성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이러한 천하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었다. 특히 국초에 한반도에서 천명을 받은 존재로 태조의 정통성을 드높이는 논리에서는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의 이념적 특징이 드러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천상열차분야지도』이다. 이 천문도의 발문을 작성한 권근은 태조가 조선의 하늘에서 천명을 받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평양성의 옛 천문도를 각석한다는 것으로 고대의 강역으로서의 한반도의 天下를 계승한다는 뜻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에서 사용하는 논리로 風土不同의 논리와 역사계승의식이 담겨져 있었다. 이 風土不同의 논리는 조선의 하늘이 중국의 하늘과 다르다는 주장으로 이어졌고, 역사계승의식은 중국의 천문도를 그대로 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옛 석각본인 평양성 천문도본을 석각하려는 데에서 알 수 있다.⁷⁵⁾

75) 이 평양성 천문도를 석각한 것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평양성 천문도를 고구려 천문도로 보았고 고구려의 하늘을 계승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근에 발표된 남궁승원의 연구(2016)에서는 이 평양성이 고조선의 기자가 도읍한 箕城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조선의 단군-기자 계승의식에 대해 조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연구단계의 견해에서 어느 한쪽을 취사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최소한 두 방향의 연구를 따르다면 평양성 석각본의 의미는 한반도 왕조의 천문관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IV. 天觀과 세계인식을 결합한 天下觀

태조 4년에 제작된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태종 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래 하늘과 지상이 서로 대응하여 짝을 이루고 있다는 관념 하에서 천문도와 지도의 제작은 따로 이뤄지는 작업이 아니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하늘의 분야를 땅에 대응시켜 확인해야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발문을 쓴 권근의 『陽村集』에 실려있는 글의 순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촌집』에 실려있는 글들은 대체로 양촌이 글을 쓴 시기에 따라 순서대로 실려있는데, 『天文圖誌』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발문을 쓴 시간적 차이가 7년인데도 두 글을 붙여서 신고 있다.

세계지도의 경우 태종 2년에 완성되어 천문도의 제작 연도차이가 7년이나 나는 것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천도 이후 1,2차 왕자의 난으로 조선의 국내 정세가 어수선했던 상황을 태종의 즉위로 일단락되자마자 세계지도 제작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태조 4년에 제작된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태종 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변동하는 동아시아 국가정세 속에서 조선의 위상을 높이고 한반도의 새로 들어선 국가인 조선의 포부를 드러내기 위해 제작된 지도였다. 두 자료가 제작된 시기는 서로 상이하지만 이 자료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모두 조선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천문도를 통해서만 개국 시조인 태조의 위상을 높여서 역성혁명을 한 조선의 명분을 부여하고, 세계지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개국한 조선의 존재감을 천하에서 드높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천문도와 세계지도를 제작하였던 것일까. 그리고 천문도와 세계지도를 제작한 배경에는 조

선인의 어떠한 관점이 작용했던 것일까. 이러한 점에 의문을 갖고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제작 의도를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의 지배층들이 독자적 天觀에 따른 天命意識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념이 多元的 天下觀이라는 세계인식과 합치되어 지도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는 과거 중국 대륙에서 위력을 떨쳤던 이적 국가인 遼·金·大夏·元에 대해서 동등한 등위로 기록하여 중화 밖에서 天命을 받아 국가를 수립한 존재로서 이들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의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자적 천명의식과 다원적 천하관을 바탕으로 조선과 천하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15세기의 조선 지배층들은 대외적으로는 명 중심의 국제질서를 철저히 따르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유교 문명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한편 조선의 문화적 독자성과 자국의 정통성을 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세종 때에 시행되었던 여러 문화 사업들을 들 수 있다. 세종은 중국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조선에 반영하려고 하였던 왕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조선의 정통성과 고유문화를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왕이었다. 특히 조선개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용비어천가』를 만들어 선조들의 공업을 노래하였는데, 이 『용비어천가』는 天命을 받아 나라를 개창한 태조의 공업을 강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세종이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태조를 통해 조선의 정통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조선의 건국 자체가 天命에 의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외에도 세종 때 雅樂과 함께 鄉樂을 정비했던 것은 중국의 제도에 따라 음악을 정비하면서도 조선의 형편에 맞게 아악을 재정립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고 고유 음악인 향악에 대해서는 이를 정비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또한 『칠정산』 내외편의 편찬을 비롯하여 과학 기구의 제작 및 개발은 중국의 문물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조선의 형편을 고려하여 제작한 것이었다. 이처럼 세종대에 이뤄졌던 문화사업 대부분이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시작되면서도 風土不同의 논리에 입각하여 조선의 상황에 맞게 수정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세종이 재위 말에는 많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릎 쓰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세종이 갖고 있던 조선의 문화적 독자성을 가장 잘 표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중화가 아닌 조선의 주변 국가들이 중에 중화를 위협할만한 강대했던 역대 국가들은 모두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 썼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라들로써는 거란족의 遼와 여진족의 金, 그리고 西夏가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 중화 주변의 이적 국가이면서도 중화 국가인 宋보다 강한 국력으로 황제국 체제를 자처했던 나라들이었다. 게다가 바로 전조였던 고려를 속국으로 만들어 내정에 간섭했던 元 세조 쿠빌라이도 몽골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도록 하여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다.

세종은 조선을 중화 문명에 못지않은 문명국으로서 반열에 올리고 싶어 하였던 왕이었다. 세종 재위기간에 행했던 많은 문화 사업들도 이러한 일환에서 진행된 사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적 국가로서 중화에 필적할 만한 문명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세종은 문자창제를 생각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세종 이후는 梁誠之(1415~1482)에게 이르러서 조선의 문화적 독자성과 자주성에 대한 의식이 鼓舞되어 있는 天下觀을 살펴볼 수 있다.⁷⁶⁾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성지는 조선의 역사가 단군으로부터 비롯되어 중국 요 임금과 같은 시기에 출발하였으며, 그 영역이 萬里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밝

76) 한영우, 1975, 「訥齊 梁誠之의 社會·政治思想」, 『歷史教育』 17, 77~94쪽.

혀 조선 역사의 유구성을 강조하였다.⁷⁷⁾ 또한 조선은 중국과 다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단군 이래 문물제도와 교화의 역사 속에서 의관과 언어가 중국과 다른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였다.⁷⁸⁾ 이와 더불어 세조에게 지리지와 지도의 중요성을 力說하며 이것이 대국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것 들임을 언급하였다.⁷⁹⁾

양성지의 이러한 주장에는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논거가 있는데 바로 조선의 지리적 조건이었다.⁸⁰⁾ 양성지의 이러한 주장은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상소하기를, … 1. 예법은 본국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신은 듣건대 西夏는 그 나라의 禮俗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 백 년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元昊는 본시 영웅이었습니다. … 우리 동방 사람들은 대대로 遼水 동쪽에 살았으며, 萬里之國이라 불렀습니다. 三面이 바다로 막혀 있고, 일면은 산을 등지고 있어 그 區域이 자연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風土와 氣候도 역시 달라서 檀君 이래 官衙와 州郡을 설치하고 독자적인 聲威와 教化를 펴 왔으며, 前朝의 太祖는 信書를 지어 국민을 가르쳤는데, 衣冠과 言語는 모두 본국의 풍속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의관과 언어가 중국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면 민심이 정착되지 않아서 마치 齊나라 사람이 魯나라에 간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전조 때 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서로 잇달아서 蒙古로 投化 한 것은 한 국가로서는 매우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바라건대 의관은 朝服 이외에 반드시 다 중국 제도를 따를 필요는 없고, 언어는 通事 이외에 반드시 옛 습속을 변경하려 할 것이 아니며, 비록 燃燈·擲石이라 할지라도 역시 옛 습속을 좇아도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77) 『세조실록』 권7, 3년 3월 15일 戊寅 ; 『성종실록』 권 134, 12년 10월 17일 戊午.

78) 『세조실록』 권 1, 1년 7월 5일 戊寅.

79) 『세조실록』 권 40, 12년 11월 4일 壬申.

80) 배우성, 2000, 위의 논문, 84쪽.

위 사료에서 양성지의 주장을 살펴보면, 조선은 풍토와 기후가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고유문화마저 따르지 않고 중국의 풍속을 좇으면 민심이 정착되지 않아 前朝때 고려인들이 몽고로 투화하는 상황에 이를지 모를 일이라는 우려도 담겨져 있다. 이처럼 양성지의 견해에서는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이 연상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風土不同의 논리와 檀君이라는 始祖를 기점으로 문화권을 달리해왔다는 부분에서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15세기의 조선인의 세계관은 중화중심적 세계관에 고립되지 않고 보다 개방적인 세계인식이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 고유의 天觀과 세계인식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조선의 문화적 자주성과 정통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차용되어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 조선 사회는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채택함과 동시에 유교적 보편주의와 조선의 개별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⁸¹⁾

81) 구만옥, 2004, 「조선왕조의 집권체제와 과학기술정책 : 조선전기 천문역산학의 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4호, 231쪽.

V. 결론

본 논문은 15세기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통해 조선인의 천하관을 살펴보는 것에 그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먼저 본문 2장에서는 태조 4년에 제작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통해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天觀에 대해 규명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먼저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권근의 誌를 바탕으로 이 천문도의 내용과 제작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작업의 결과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조선을 개창한 태조 이성계가 천명을 받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데에 그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조선의 지배층들이 천문도를 통해 조선의 개창군주인 이성계의 위상을 天命으로서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중국의 천자와 동일한 논리로써 조선에서 天命을 받은 존재로 높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조선의 지배층들이 독자적인 천관 혹은 천명인식이 갖고 조선의 군주의 위상을 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문 3장에서는 태종 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통해 이러한 천관 또는 천명인식을 가지고 天下를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중화주의적 세계인식에 매몰되지 않은 개방적 세계인식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인식이 가능했던 사상적 배경으로는 고구려 그리고 고려로 이어지는 천하관의 흐름에서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이 조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5세기 조선인의 천하관은 천문도를 분석하여 확인한 조선의

독자적 천명인식과 세계지도를 통해 확인한 다원적 천하관을 통해서 조선을 중화와 분리된 지리적 공간에서 문화적 독자성을 갖는 정치주체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이는 천문도와 세계지도에서 나타난 인식을 통해 중화가 아닌 정치주체로서 조선을 天命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인하려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계지도에서는 조선과 상황이 비슷한 여러 이적국가에 대해서 그 이해의 외연을 넓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 중화사상에 매몰되지 않은 세계인식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천하관이 15세기 조선의 지배층에게 나타나는 양상을 세종과 양성지의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참 고 문 헌

I. 사료

『天象列次分野之圖』,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史記』, 『高麗史』, 『圃隱集』, 『陽村集』

II. 단행본

- 개리 레드야드 지음, 장상훈 역, 2011, 『한국 고지도의 역사』, 소나무.
- 도광순, 1994, 『神仙思想과 道敎』, 범우사,
- 도현철, 1999, 『高麗末士大夫의 政治思想研究』, 일조각.
- 문중양, 2006, 『우리역사 과학기행』, 동아시아.
- 문중양, 2013, 『천문의 왕국』, 『15세기』, 민음사.
- 미야노 노리코 지음, 김유영 역, 2010, 『조선이 그린 세계지도 : 몽골 제국의 유산과 동아시아』, 소와당.
- 박성래, 2005, 『한국과학사상사』, 유스북.
- 박원호,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 배우성, 1999, 『조선 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 서정철, 1991, 『서양 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 오상학, 2011,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 이용범, 1993, 『韓國科學思想史研究』, 東國大學校出版部.
- 한영우 외, 1999,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 J. 니ーダム, 1976, 『中國の科學と文明』 제6권, 思索社.

W. C. Rufus, 1931, "The Celestial Planisphere of King Yi Tae Jo"
Transactions of Korean Branche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4(3).

Ⅲ. 연구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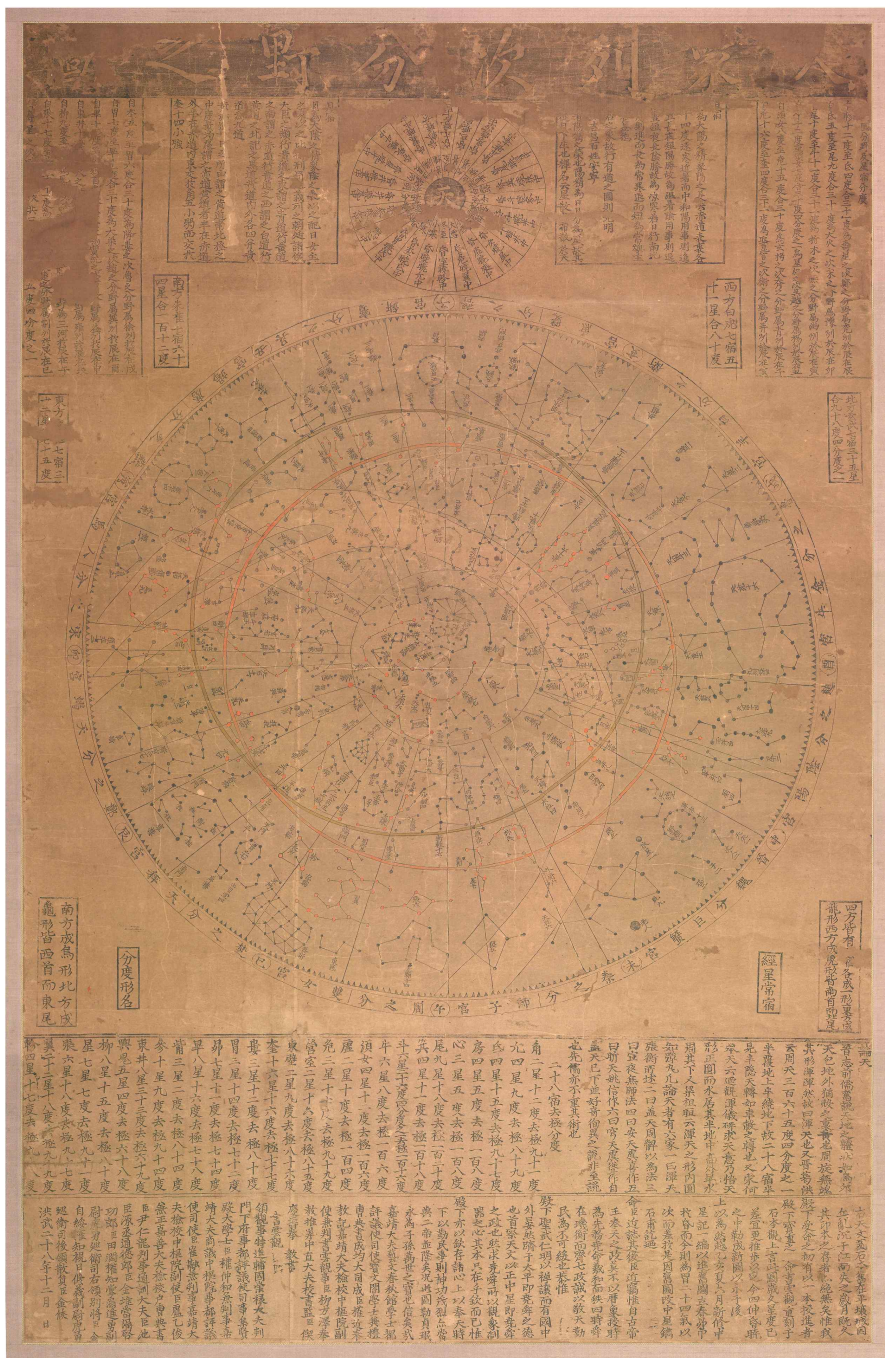
- 고교정, 1995,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研究 小史: 日本의 경우」, 『문화역사지리』 7.
- 구만옥, 2004, 「조선왕조의 집권체제와 과학기술정책 : 조선전기 천문역산학의 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4.
- 김문용, 2009, 「동국의식과 세계 인식-조선시대 집단적 자아의식의 한 단면」, 『국학연구』 14.
- 김성환, 2008, 「鄭夢周의 華夷論의 歷史觀」, 『圃隱學研究』 2.
- 남궁승원, 2016, 〈天象列次分野之圖〉에 나타난 역사계승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호, 1997,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的 天下觀」, 『震檀學報』 83.
- 노명호,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 노태돈, 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 노태돈, 1988,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의 天下觀」, 『韓國史論』 19.
- 박성래, 1999, 「역사속 과학인물 - 고려 충렬왕때의 대표적 천문학자 ‘오윤부 (?~1304)」, 『과학과 기술』 32(11).
- 박창범, 1998, 「天象列次分野之圖의 별그림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20(2).
- 배우성, 2000, 「朝鮮後期 實學者들의 國土觀과 地域認識」, 『韓國史研究』 108.
- 백옥경, 2012,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山嶽 표기에 나타난 諸認識」, 『이화사학연구』 45.

- 안상현, 2011,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오는 고려시대 피휘와 천문도의 기원」, 『古宮文化』 4.
- 안상현, 2013, 「신구법천문도 병풍의 제작 시기」, 『고궁문화』 6.
- 안상현, 2013, 「『天象列次分野之圖』圖說의 문헌학적 연구」, 『민족문화』 42.
- 양보경, 2009, 「상징경관으로서의 고지도 연구」, 『문화역사지리』 21(1).
- 오현진, 2014, 紫微斗數 研究 : 成立 背景과 理論的 土臺를 中心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유경아, 1996, 『鄭夢周의 政治活動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유경아, 2007, 「高麗末 親明外交와 圃隱 鄭夢周의 外交觀 - 恭愍王~禡王初를 중심으로」, 『圃隱學研究』 1.
- 윤사순, 2000, 「16세기 天命思想과 儒敎政治」, 『歷史上의 國家權力과 宗教』, 일조각.
- 이은성, 1986,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분석」, 『세종학연구』 1.
- 이 찬, 1976, 「韓國의 古世界地圖 : 天下圖와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대하여」, 『韓 國學報』 2(1).
- 이 찬, 1992, 「朝鮮前期의 世界地圖」, 『학술원논문집』 31.
- 전상운, 1992, 「조선전기의 과학과 기술 - 15세기 과학기술사 연구 재론-」, 『한국과학사학회지』 14(2).
- 정인철, 2008, 「서양 중세 세계지도에 표현된 지상낙원의 지도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3(3),
- 최창모, 2013,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1402년)의 제작 목적 및 정치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3(1).
- 한영우, 1975, 「訥齊 梁誠之의 社會·政治思想」, 『歷史敎育』 17.
- 한영호, 2007,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의 실체 재조명」, 『古宮文化』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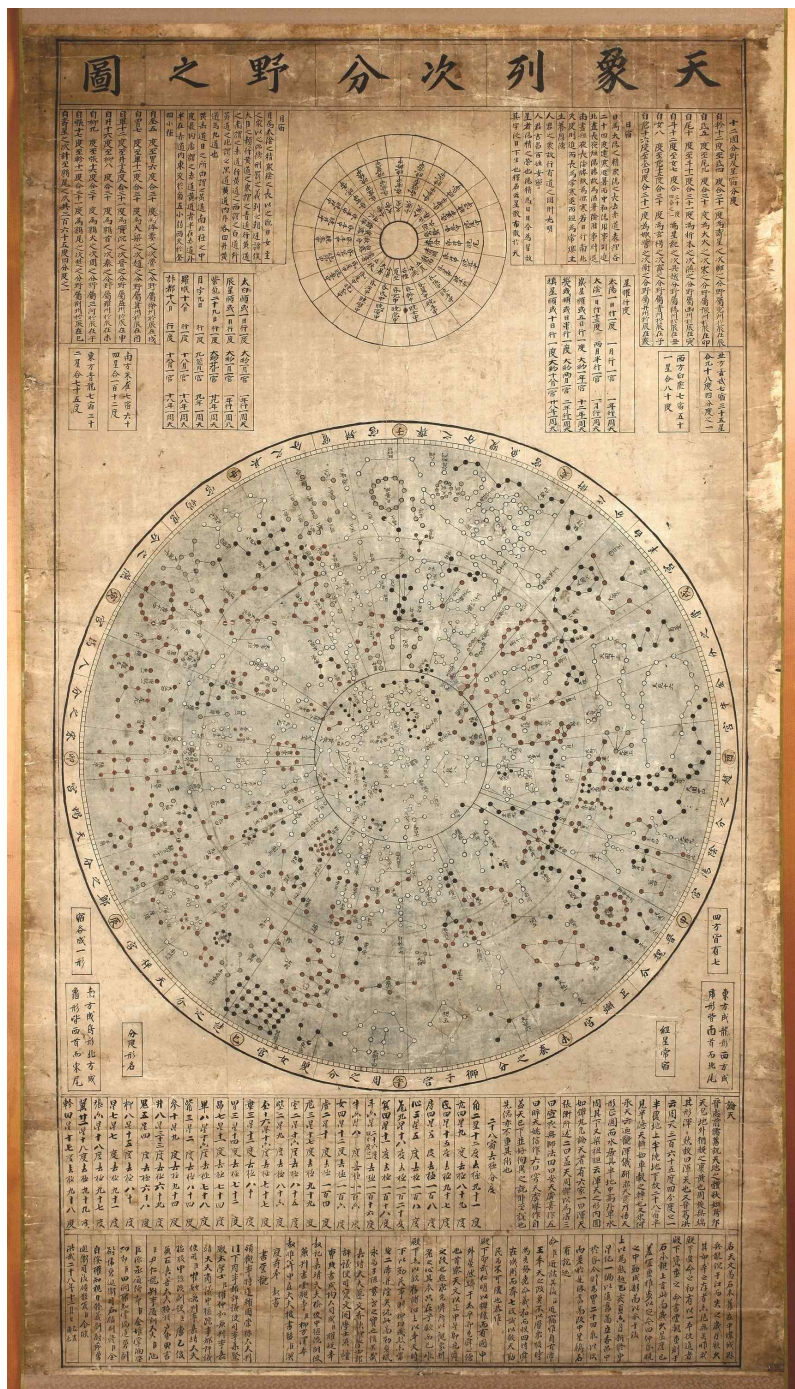
船越昭生, 1982, 「中國傳統地圖にあらわれた東西の接觸」, 『地理の思想』, 地人書房.

青山定雄, 1938, 「元代の地圖について」, 『東方學報』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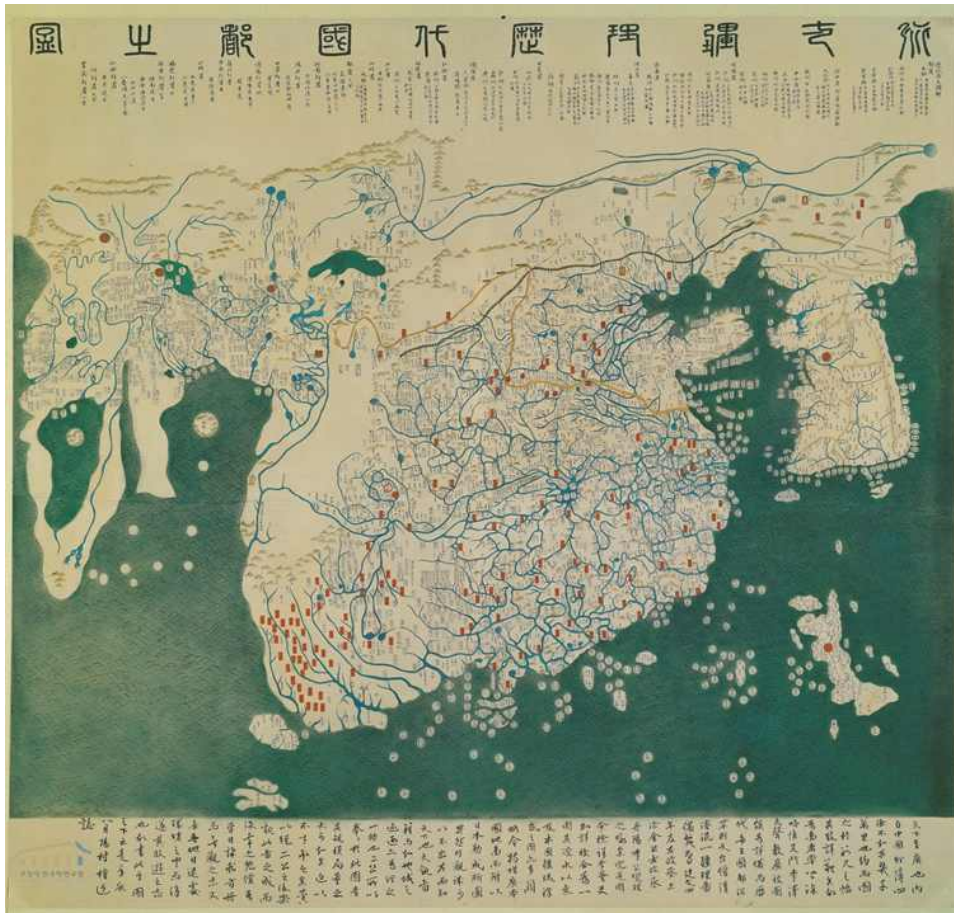
[도판 3] 天象列次分野之圖 宣祖 木版本
(고궁박물관 소장 자료)



[도판 4] 復刻天象列次分野之圖 筆寫本
(문화재청 제공 자료)



[도판 5]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龍谷大學校 寫本 이찬 제공 模寫本 (규장각 소장자료)



ABSTRACT

The world view of Joseon's people in the 15th century

Kim Yul Hee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previous studies, the period of 15th Century in Joseon Dynasty has been examined and understood as the time building up the system with the values of Neo-Confucianism. Thus, the 15th Century of Joseon Dynasty has been generally classified as a period of transition to the 16th century.

However, this thesis questioned this idea and planned to verify that the world view which most Joseon people had in the 15 century had been established upon various cultural bases inherited from Goryeo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the Neo-Confucianism values.

In order to analyze the hypothesis, the world view of Joseon people in 15th century was examined with 『King TaeJo's Planisphere』 and 『King Taejong's Worldmap』 which were national works carried out in the early years of the dynasty.

For this work, the production process and the purpose of the two materials were intensively analyzed in the body. This analysis confirmed

that the political purpose of 『King TaeJo's Planisphere』 was the consolidation of King Taejo's power.

Moreover, it seems that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Joseon founders to make the planisphere for King Taejo's power was that there was ordination of heaven ideas in Joseon's own way. In other words, China's emperors was not the only agent receiving the ordination of heaven, but Taejo also had the role, which made him it possible to found the Joseon dynasty with the ordination.

The 『King Taejong's worldmap』 is the source showing that there were nations thriving with the ordination outside of Chinese civilization and also revealing aspirations of Joseon dynasty. Furthermore, the ideological background enabling Joseon to make such world map had been influenced by Pluralistic worldview of Goryeo.